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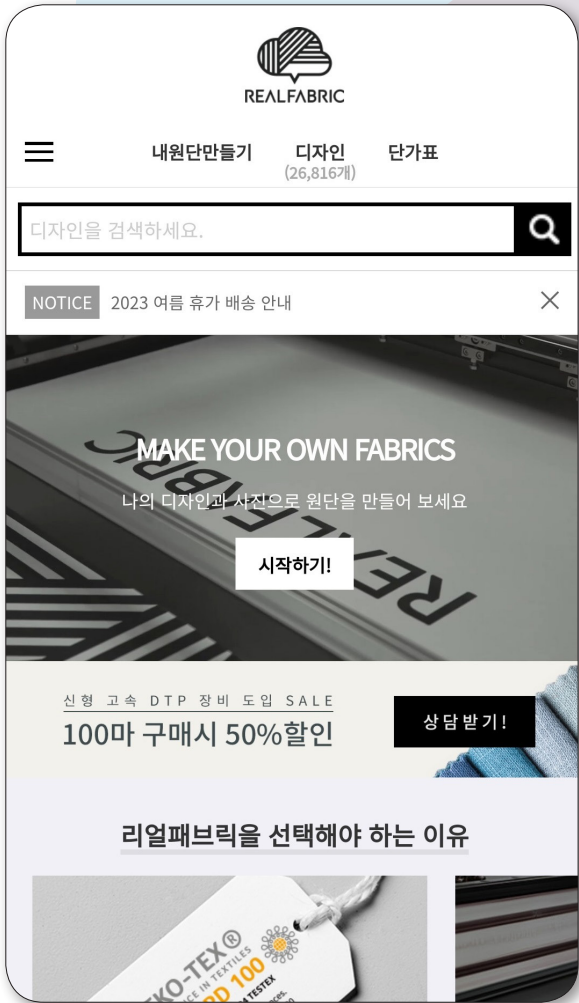


서진머티리얼

e-플랫폼으로 BM 혁신, 섬유산업 지속가능성 향상 ‘리얼패브릭’으로 일본 시장서 30억원 판매

서진머티리얼(대표 송규용)은 1999년에 설립된 염색 가공 전문기업으로 서면 날염과 면, 실크, 폴리에스터 DTP(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가 메인 아이템이다. 대량생산 기반의 B2B로 성장했으나 2013년 고객주문형 맞춤 제작 방식인 리얼패브릭(www.realfabric.net)을 통해 B2C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100% Made in KOREA’를 고집하는 서진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BM(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시장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30억원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높은 잠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서진머티리얼은 소량 맞춤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설비에 과감히 투자했고, DTP 제조로 환경오염까지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디지털 프린팅의 공정 단축을 통해 용수와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시간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면, 폴리에스터, 실크 등 기존 주력 아이템 외에도 리사이클 소재와 복합 소재에도 디지털 프린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 플랫폼과 제조서비스를 일체화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디맨드 DTP 시스템 구축... 디자이너 브랜드와 협업

송규용 서진머티리얼 대표는 “우리 내부에서는 본질에 충실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은 철저히 아웃소싱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인 아웃소싱을 통해 2만 4,000여개 디자인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 고객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본인이 원하는 소재를 받아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B2C 영역에서 BM을 혁신했지만, 향후 연 매출 50~100억원 규모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위한 B2B 서비스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수많은 취향이 존재하기에 플랫폼 서비스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최적화된 텍스타일을 보장해줌으로써 개발 비용과 공급 시간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Stable) 지속가능한(Sustainable)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다이텍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사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디자이너와 사용자들의 취향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향후 패브릭 다이브에서 추진 중인 3D 가상인류 시뮬레이션을 홈 패브릭 생활용 제품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플랫폼에서 소비자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프린팅과 맞춤 서비스는 ‘친환경’과 직결

서진머티리얼은 프리미엄 친환경 디지털 프린팅을 유난히 강조한다. 환경품질 기준의 상향화를 위한 까다로운 유럽시장 기준을 채택해 화학물질을 EU Reach에 대응할 수 있는 염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전 과정의 안전 테스트를 위해 유해물질 안정성 인증인 OEKO-Tex 인증 획득으로 인체에 대한 무해성 검증을 받았으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불필요한 초과 생산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자와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른 맞춤 제작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최근 MZ로 대변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소비 마인드와도 연결되고 있다.



SPECIALTY

- 주요 제품 면 날염, 면, 실크, 폴리에스터 DTP
- 주요 거래선 B2C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미국, 일본 수출
- 2024 SS 대표 소재 부드러운 질감의 고급실크, 얇은 광택의 고급실크, 친환경 면원단
- 생산 미니멈 0.5yd(샘플)
- 기업 인증 OEKO-TEX 친환경 인증
- 홈페이지 www.realfabric.net, www.realfabric.jp
- 연락처 edwardworld@naver.com 권현정

